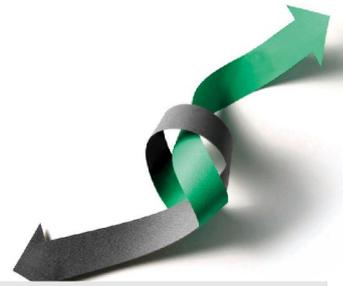


Daishin Morning Meeting Brief

2011. 05. 17



투자포커스

■ 국제 유가의 상승을 예상하는 세 가지 이유

홍순표 / 769-3091

당분간 국제 유가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향후 국제 유가가 상승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대략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첫째, 하반기에도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글로벌 유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도 향후 국제 유가의 상승 추세를 지지해 줄 것이다. 셋째,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국제 사회의 규제 리스크로 인한 국제 유가의 변동성 확대에 대해 경계 해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펀더멘탈 측면에서 국제 유가와 KOSPI의 상승 추세 지속 가능성에 주목하는 시각을 공고히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산업 및 종목 분석

■ 삼성전기: 2011년 3분기에 펀더멘탈 변화가 시작되다.

박강호 / 769-3087

삼성전기에 대한 투자전략은 2011년 2분기 보다는 3분기 이후에 MLCC, LED, FC CSP 등 고수익성 제품의 출하량 증가에 따른 이익모멘텀 확대에 초점을 맞춘 시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동사에 대한 투자의견은 매수, 6개월 목표주가는 155,000원을 유지한다.

■ GKL: 신규사업부 매출증가 효과 기대

김윤진 / 769-3398

GKL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 목표주가를 21,000원으로 유지한다. 2011년 EPS가 1,077원으로 산출되어 PER이 높게 보이나 이는 일회성 법인세 추징금 약 280억원이 일시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제외한 2011년 EPS는 약 1,500원으로 산출되고 PER은 11.6배로 산출된다.

■ LS산전: 신규사업부 매출증가 효과 기대

김록호 / 769-3399

박강호 / 769-3399

LS산전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00,000원을 유지한다. 이는 1) 동사의 신규사업부 매출 성장이 견조하게 진행중에 있어 2011년을 원년으로 성장기업으로 변화하는 동사의 투자포인트가 유효하며, 2) 태양광과 초고압변압기의 경우, 2Q11 이후에는 매출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에서도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3)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법인 역시 전년동기대비 67.4%의 매출 성장을 시현한 549억원을 기록해 동사의 외형성장(IFRS연결 기준)에 일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제약산업: 4월 원외처방액 전년동월 대비 0.3% 증가, 하반기부터 성장세 회복 기대

정보라 / 769-3366

4월 원외처방액은 지난해 대비 0.3% 증가한 7,520억원을 기록하였다. 이는 지난달 증가율 대비 4.5%p 감소한 것이며, 지난 2월 이후 증가율은 계속해서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패널 처방전수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월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4월의 경우 12.1%나 감소하였다. 지난해의 기저효과로 인해 성장을 둔화는 2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신제품 출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상반기 출시된 제네릭의 매출 증가율이 두드러지는 하반기부터는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 포커스

홍순표 769-3091

국제 유가의 상승을 예상하는 세 가지 이유

당분간 국제 유가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향후 국제 유가가 상승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대략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첫째, 하반기에도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2009년 2월에 저점을 확인한 OECD 경기선행지수는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하반기 글로벌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하반기 글로벌 경제의 성장 지속 가능성은 원유에 대한 수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제 유가의 상승 추세를 강화할 것이다.

둘째, 글로벌 유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도 향후 국제 유가의 상승 추세를 지지해 줄 것이다.

미국 경제의 다운 사이드 리스크(주택, 실업 등)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긴축 행보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되더라도 주요국들과의 기준금리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축소되기 어려운 만큼 달러화 약세 기초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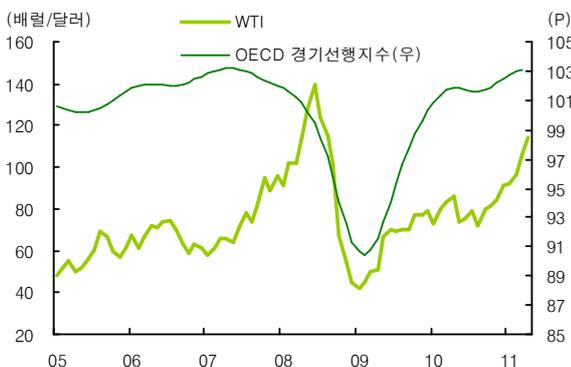
셋째,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경험적으로 원유에 대한 수요는 북반구의 동절기인 12월~3월까지 집중되고,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되는 6월부터 8월까지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도 북반구의 동절기에 이어 하절기에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멕시코만 허리케인 발생으로 인한 공급 차질도 하절기 국제 유가의 상승 요인이 되어왔다.

규제 리스크는 경계해야겠지만, 상승 추세 지속 가능성은 의심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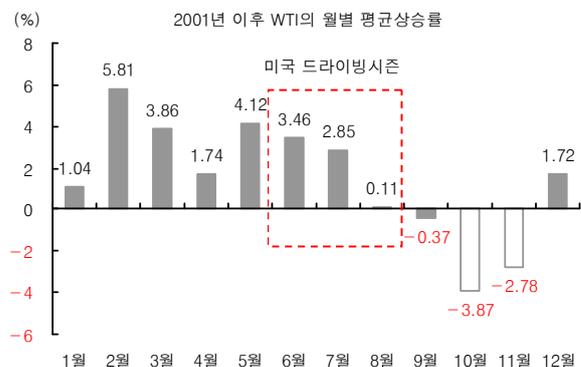
최근 국제 유가의 급등락과 함께 KOSPI에 반영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와 유동성 관련 불안감은 과대한 것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단기적으로 국제 사회의 규제 리스크로 인한 국제 유가의 변동성 확대에 대해 경계 해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펀더멘탈 측면에서 국제 유가와 KOSPI의 상승 추세 지속 가능성에 주목하는 시각을 공고히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림 1 글로벌 경제 성장은 원유 수요 증가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뚜렷한 계절성을 반영하고 있는 국제 유가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산업 및 종목 분석

삼성전기(009150)

Buy [매수, 유지]

박강호 769.3087 john_park@daishin.com / 김록호 769.3399 roko1999@daishin.com

2011년 3분기에 펀더멘탈 변화가 시작된다.

투자 의견은 '매수(BUY)', 6개월 목표주가 155,000원 유지

삼성전기에 대한 투자 전략은 2011년 2분기 보다는 3분기 이후에 MLCC, LED, FC CSP 등 고수익성 제품의 출하량 증가에 따른 이익모멘텀 확대에 초점을 맞춘 시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011년 하반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부품업체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거래선 다변화 및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동사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 6개월 목표주가는 155,000원을 유지한다. 2011년 하반기에 삼성전기를 주목하는 이유는

- 1) 현재 우려되고 있는 주요 이슈가 2011년 2분기 중으로 해소되면서 3분기에 실적 모멘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분기말 기점으로 지진 영향을 받은 일본 소재 업체들의 생산이 정상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하여, 일부 부품수급 문제(BT 레진, CCL 등)는 없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3D TV 기술에 대한 경쟁이 마케팅으로 연결되면서 3D TV 가격하락으로 LED TV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TV 판매량이 3분기에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상반기 수준의 영업이익률(20% 이상)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2011년 1분기를 저점으로 수익성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 2) 삼성전자의 갤럭시S2, 갤럭시탭2 출시가 각각 2011년 5월, 6월인 점을 감안하면 2011년 3분기에 본격적인 판매로 연결되면서 매출 증가에 따른 이익모멘텀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전통적으로 3분기 및 4분기가 성수기인 동시에 삼성전자의 갤럭시S2, 갤럭시탭2 신제품 출시와 아이폰 5G 출시 예정, 3D TV 등 LED TV 가격하락에 따른 교체 수요가 반영되면서 2011년 하반기에 상반기 대비 이익모멘텀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아이폰 독주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안드로이드 OS 진영에서 경쟁력을 구비한 제품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S2가 유일하다고 분석되며, 갤럭시S2 출하량은 갤럭시S의 1,500만대를 상회한 2천만대 이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3)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2011년 1분기(921억원) 저점으로 2분기 1,506억원, 3분기 2,334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분기는 LED의 턴어라운드 주춤하지만 3분기 이후에 IT 수요 증가에 힘입어 MLCC, LED, Package Substrate(FC BGA, FC CSP)의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MLCC는 글로벌 IT 시장에서 제품 및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Captive Market인 삼성전자, 애플 등 글로벌 스마트 업체에 대한 공급 비중 확대로 매출, 이익 증가세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진 영향으로 일본 MLCC 업체에 대한 공급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삼성전기에 대한 구매 비중이 종전 대비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목표주가	155,000 원
현재가(2011.05.16)	108,500 원
예상주가 상승률(6M)	42.9%
시가총액	8,217 십억원
시가총액 비중	0.7%
자본금(보통주)	388 십억원
액면가	5,000 원
52주 최고/최저	159,500 원 / 102,500 원
12월 평균거래대금	1,191 억원
KOSPI	2,104.18
발행주식수	77,601 천주
외국인지분율	15.0%
자사주	0.22%
주요주주	
삼성전자	23.69%
국민연금기금	7.11%
배당수익률(10년)	0.81%

Performance

주가 상승률(%)	절대주가	상대주가
1개월	-5.2	-3.6
6개월	-13.9	-22.3
12개월	-28.1	-42.1

GKL(114090)

Buy [매수, 유지]

김윤진 769.3398 yoonjinkim@daishin.com

외형 성장 둔화되나 수익성 개선 전망

수익성 개선은 긍정적이나 외형 성장은 제한적

GKL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주가를 21,000원으로 유지한다. 2011년 EPS가 1,077원으로 산출되어 PER이 높게 보이거나 이는 일회성 법인세 추징금 약 280억원이 일시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제외한 2011년 EPS는 약 1,500원으로 산출되고 PER은 11.6배로 산출된다. 2011년 GKL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제목과 같이 ‘외형 성장 둔화, 수익성 개선’이라고 판단된다. 수익성이 개선되는 점은 긍정적이나 현 주가 수준에서 업사이드라 크지 않아 외국인 카지노 차선회 종목으로 추천한다.

1분기 실적 시장기대치 수준

GKL 1분기 실적을 IFRS 기준으로 발표하였으나 이번 보고서까지는 과거 비교 편의성을 위해 K-GAAP기준으로 작성되었다. K-GAAP기준 GKL 1분기 실적은 매출액 1,486억원(+1.1% yoy), 영업이익 336억원(+15.5% yoy)으로 매출액은 기대치 수준, 영업이익은 기대치를 소폭 상회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업이익률이 24.5%로 작년대비 3.5%p 개선되었는데 이는 1) 프로모션 등 마케팅 비용 절감과, 2) 2010년 실적 하락으로 복지기금 등 감소에 기인한다고 추정된다. 순이익은 58억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법인세 추징금 약 280억원을 일시에 반영한 효과로 일회성 요인에 기인한다.

1분기 주요 영업지표를 점검해보면 드랍액이 전년대비 1.1% 증가하였고 홀드율은 14.2%를 기록하였다. 홀드율 개선은 과도한 프로모션을 자제한 결과라 보여지며 긍정적이나 드랍액 증가 속도는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업지표 또한 GKL 2011년 방향성인 외형 성장 둔화, 수익성 개선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목표주가	21,000원
현재가('11/05/13)	17,400원
예상주가상승률(6M)	20.7%
시가총액	10,763억원
시가총액비중	0.1%
자본금(보통주)	309억원
액면가	500원
52주 최고/최저	24,950원 / 14,15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19억원
KOSPI	2,120.08
발행주식수	61,856천주
외국인지분율	27.6%
자사주	0.00%
주요주주	
한국관광공사	51.00%
The Boston Company Asset Management LLC	7.06%
배당수익률(10년)	3.00%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09A	2010A	2011F	2012F	2013F
매출액(십억원)	489	529	560	603	652
영업이익(십억원)	129	96	125	122	154
세전순이익(십억원)	133	95	127	126	158
순이익(십억원)	101	72	67	95	119
EPS(원)	1,676	1,156	1,077	1,532	1,928
증감율(%)	67.0	-31.0	-6.9	42.3	25.8
PER(배)	11.7	17.9	16.2	11.4	9.0
PBR(배)	6.4	6.2	4.3	3.5	2.9
ROE(%)	69.6	36.2	29.4	34.4	35.5

주: 2012년부터 카지노 매출액의 약 3.5% 개별소비세 적용, K-GAAP 기준
 자료: GKL,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LS 산전(010120)

Buy [매수, 유지]

김록호 769.3399 roko1999@daishin.com / 박강호 769.3087 john_park@daishin.com

신규사업부 매출증가 효과 기대

신규사업부 견조한 매출성장 달성, 2Q11부터 영업이익 개선도 가능 전망

LS산전의 1Q11 실적은 매출액 3,279억원(-10.4% yoy, -16% qoq), 영업이익 300억원(25.2% yoy, -10.7% qoq)으로 컨센서스 및 당사추정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신규사업부 매출의 경우, 태양광과 초고압변압기를 축으로 전년동기대비 117% 성장한 360억원을 시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전체 매출액의 11% 비중으로 동사의 신규사업부 성장스토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2011년에도 신규사업부의 영업이익은 BEP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영업손실 폭은 상당부분 축소되어 전사기준 영업이익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00,000원 유지

동사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00,000원을 유지한다. 이는 1) 동사의 신규사업부 매출 성장이 견조하게 진행중에 있어 2011년을 원년으로 성장기업으로 변화하는 동사의 투자포인트가 유효하며, 2) 태양광과 초고압변압기의 경우, 1Q11 실적 기준으로 각각 200억원,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며 BEP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되어 2Q11 이후에는 매출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에서도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3)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법인 역시 전년동기대비 67.4%의 매출 성장을 시현한 549억원을 기록해 동사의 외형성장(IFRS연결 기준)에 일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IFRS연결 기준 실적 : 1Q10 영업외단 일시적 수익에 의한 착시효과

LS산전의 IFRS 연결 기준 1Q11 실적은 매출액 4,992억원(27.6% yoy), 영업이익 358억원(-10.1% yoy)을 기록하였다. 전년동기대비 영업이익 감소는 1Q10에 일시적으로 파생상품거래 손익 72억원, 가양 건물 처분익 14억원, IFRS 기준 변경에 따른 대손충당금 환입 25억원이 반영된 것이 원인이다. 이를 제외한 1Q10의 실질적인 영업이익은 287억원으로 1Q11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4.7%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목표주가	100,000원
현재가('11/05/16)	76,500원
예상주가상승률(GM)	30.7%
시가총액	22,950억원
시가총액비중	0.2%
자본금(보통주)	1,500억원
액면가	5,000원
52주 최고/최저	102,000원 / 62,4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10억원
KOSPI	2,104.18
발행주식수	30,000천주
외국인지분율	8.1%
자사주	2.25%
주요주주	
LS	46.00%
국민연금공단	7.47%
배당수익률(10년)	1.27%

2011년 1분기 실적 비교

(단위: 십억원, %)

구분	확정치		잠정치			컨센서스 1Q11(F)	대신증권 추정치		
	1Q10	4Q10	1Q11(A)	YoY	QoQ		2Q11(F)	YoY	QoQ
매출액	366	390	328	-10.4	-16.0	337	421	21.2	28.4
영업이익	24	33	30	25.2	-10.7	33	50	6.7	65.2
순이익	23	28	19	-18.9	-32.7	26	38	11.4	98.6

주: K-GAPP 기준

자료: LS산전, 컨센서스는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제약/바이오

Overweight (비중확대,유지)

정보라 769.3366 brchung@daishin.com

4월 원외처방액 전년동월 대비 0.3% 증가, 하반기부터 성장세 회복 기대

4월 원외처방액은 7,52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0.3% 증가

4월 원외처방액은 지난해 대비 0.3% 증가한 7,520억원을 기록하였다. 이는 지난달 증가율 대비 4.5%p 감소한 것이며, 지난 2월 이후 증가율은 계속해서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패널 처방전수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월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4월의 경우 12.1%나 감소하였다. 영업일수가 1일 차이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내원환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처방전 당 처방액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처방되는 약의 평균약가와 처방전 당 처방량이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의 기저효과로 인해 성장율 둔화는 2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신제품 출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상반기 출시된 제네릭의 매출 증가율이 두드러지는 하반기부터는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낮추고, 하반기 턴어라운드 스토리와 신약/수출 모멘텀에 주목

3월에 이어 여전히 상위제약사들의 실적이 좋지 않은데 주요한 원인은 리베이트 규제 강화에 따른 영업활동 위축인 것으로 판단된다. 회사별 원외처방액 증가율을 살펴보면 상위 제약사들은 대웅제약 +3.3%, 동아제약 -1.7%, 한미약품 -16.3%, 유한양행 -14.2%로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며 처방액 점유율이 15.7%로 전월 대비 0.2%p 감소하였다. 반면 종근당 +7.3%, 일동제약 +7.7%, CJ +17.0% 등 중형사들은 높은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고, 주요 중형제약사들의 점유율은 18%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정부 단속강화는 상위사들의 영업활동 뿐 아니라 제네릭 제품 마케팅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스모틴(대웅제약, 위장관운동 개선제)’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난 3월 제네릭 출시 이후 약가가 20%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 처방액은 10%만 감소하였고, 제네릭 1위인 종근당 제품은 처방액 6억원에 그치면서 예전 타 제네릭 사례와 달리 제네릭 제품의 시장 침투가 매우 더딘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2011년부터 상위제약사들은 제네릭 신제품 출시 효과와 영업활동 강화로 시장점유율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3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규제로 인해 외형성장세 회복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하반기 이후 본격화 될 것으로 추정된다. 내수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해외수출과 신약개발 역량이 중요한 투자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외 신약개발을 기반으로 한 R&D 모멘텀이 부각될 ‘동아제약’과 독감백신과 혈액제제 수출이 기대되는 ‘녹십자’를 업종 Top pick으로 유지한다.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유가증권시장 : 순매수 금액)

(단위: 십억 원)

구분	5/16	5/13	5/12	5/11	5/09	05월 누적	11년 누적
개인	429.9	545.7	1053.2	-1.5	221.7	2,689	4,947
외국인	-509.3	-637.7	-996.4	143.6	70.9	-1,922	-820
기관계	67.4	117.6	-52.3	-33.1	138.6	-253	-2,716
증권	84.2	17.2	-62.7	-16.9	-15.0	153	1,178
보험	-14.7	-32.7	-156.8	-33.1	18.8	-192	-1,249
투신	-41.9	83.1	40.0	190.8	141.4	-21	-6,227
은행	29.5	11.9	45.3	23.8	0.4	-22	180
증권	11.4	15.2	7.1	3.7	-7.2	-63	-81
연기금	1.2	-23.2	73.6	-203.8	3.0	-235	3,157
사모펀드	-2.2	46.0	1.2	2.5	-2.8	128	325

자료: Bloomberg

▶ 종목 매매동향

유가증권 시장

(단위: 십억 원)

순매수	외국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도	금액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하나금융지주	34.9	현대차	84.3	호남석유	30.6	하나금융지주	74.8		
하이닉스	21.5	OCI	57.5	삼성전자	26.7	하이닉스	24.5		
LG 생활건강	9.3	기아차	42.9	LG	25.0	현대제철	20.4		
아모레퍼시픽	8.9	삼성전자	34.6	현대차	22.4	대림산업	20.1		
삼성화재	7.0	POSCO	32.4	엔씨소프트	17.7	현대중공업	16.9		
롯데쇼핑	6.0	SK 이노베이션	26.1	OCI	17.0	우리금융	16.1		
금호석유	5.6	신한지주	24.1	삼성물산	15.6	KB 금융	11.7		
동부화재	4.1	LG	24.1	삼성 SDI	14.4	LG 상사	11.6		
대림산업	3.6	호남석유	23.6	S-Oil	12.7	한진해운	8.3		
현대하이스코	3.1	현대중공업	20.6	고려아연	11.9	두산중공업	8.3		

자료: KOSCOM

코스닥 시장

(단위: 십억 원)

순매수	외국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도	금액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멜파스	5.5	셀트리온	1.2	CJ E&M	3.3	다음	4.3		
다음	5.2	오성엘에스티	0.9	네패스	2.0	성우하이텍	3.8		
서울반도체	2.9	실리콘웍스	0.7	AP 시스템	1.5	네오위즈게임즈	2.8		
씨젠	2.6	에스엔유	0.7	STS 반도체	1.1	씨젠	1.5		
CJ 오쇼핑	2.0	STS 반도체	0.6	제이앤케이히터	1.0	파라다이스	1.4		
덕산하이메탈	1.6	CJ E&M	0.6	하나마이크론	0.9	이오테크닉스	1.0		
파라다이스	1.3	원익 IPS	0.6	에스엠	0.9	루멘스	0.4		
네오위즈게임즈	1.2	이라이컴	0.6	CJ 오쇼핑	0.8	유비쿼스	0.3		
성우하이텍	1.1	SK 브로드밴드	0.5	GS 홀쇼핑	0.8	고영	0.3		
하나투어	1.1	에스에프에이	0.4	엘엠에스	0.8	휴맥스	0.3		

자료: KOSCOM

▶ 최근 5일 외국인 및 기관 순매수, 순매도 상위 종목

외국인

(단위: %, 십억 원)

순매수	금액	수익률	순매도	금액	수익률
하이닉스	128.6	3.3	삼성전자	305.5	1.1
KB 금융	111.0	-3.2	현대차	275.8	-6.1
GS 건설	23.1	-4.2	현대모비스	227.7	-3.5
LG 생활건강	22.7	6.8	OCI	215.8	-4.6
삼성증권	21.3	-2.2	LG 화학	158.0	-2.6
동부화재	19.2	-1.9	현대중공업	115.2	-5.5
CJ 오쇼핑	18.9	7.1	LG 디스플레이	102.6	-2.6
NHN	18.6	-3.6	LG	99.1	4.5
신한지주	18.1	-6.5	한화케미칼	97.1	-0.1
SK	16.4	-1.6	SK 이노베이션	96.5	-2.5

자료: KOSCOM

기관

(단위: %, 십억 원)

순매수	금액	수익률	순매도	금액	수익률
삼성전자	310.0	1.1	하나금융지주	254.8	-15.3
LG 전자	168.2	7.5	KB 금융	91.9	-3.2
LG 디스플레이	151.0	-2.6	기아차	85.1	-5.6
LG	108.0	4.5	대림산업	78.7	-10.0
OCI	88.6	-4.6	현대중공업	52.8	-5.5
호남석유	79.6	5.1	신한지주	51.2	-6.5
한화케미칼	54.2	-0.1	우리금융	47.9	-5.9
삼성전기	51.8	5.9	삼성증권	45.3	-2.2
호텔신라	40.6	8.0	LG 상사	42.0	8.9
한국타이어	40.0	5.5	GS	38.6	-2.0

자료: KOSCOM

▶ 아시아증시의 외국인 순매수

(단위: 백만 달러)

구분	5/16	5/13	5/12	5/11	5/09	05월 누적	11년 누적
한국	-445.1	-573.2	-908.4	149.6	52.3	-1,931	-709
대만	-230.9	-171.1	-104.5	210.1	428.9	15	2,297
인도	0.0	0.0	-195.7	54.6	54.5	-602	27
태국	0.0	-66.2	-31.9	77.9	39.9	-160	734
인도네시아	-49.4	22.4	4.3	41.6	-10.3	174	1,821
필리핀	2.5	0.3	-7.4	-8.9	-11.6	-55	296
베트남	1.0	1.5	1.0	0.6	0.7	8	99

주: 대만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현황은 TWSE(Taiwan Stock Exchange) + GTSM(Gre Tai Securities Market)의 합산 데이터임. GTSM은 우리나라의 코스닥에 해당되는

General Board와 프리보드 역할을 하는 이머징 스타크 시장 등으로 구분. 이머징 스타크 시장은 General Board로 건너가기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

자료: Bloomberg, 각국 증권거래소